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

가 비운 책이든, 실직한 책이든, 비싼 책이든, 가격이 낮은 책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활자하얗게 눈에 들어온 문장은 읽고, 또 읽고 읽어보자. 그러면서, 큰장 하나하나를 독자의 '눈과 가슴에 담아주기' 위해 '수많은 언어의 조합'과 사투를 번철을 작가의 마음을 들여다보자. 이처럼, '인격적인 뿌리'에서 시작하여 사회 문화의 보편적인 목소리를 찾기 위한 '작업'을 우리는 '읽는 것'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벼운 책이든, 신중한 책이든 일단 구해볼 한 책을 읽고 난 다음에도 소장하고 있다가 최초 구매 가격 상당의 일 정도를 받고 파할 수 있다. 좋고 책만 사서 읽으면 돈이 훨씬 적게 든다. 시간당 6원5000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한편 책을 사지 않고 대여 문고에서 빌려 읽으면 시간당 반 페니가 든다. 게다가 공립 도서관에서 빌려 보면 공짜나 다를없다. 이 정도 해기했으면 독서가 돈이 가장 적게 드는 여가활동의 하나라는 주장은 충분할 것이다.' (조지 오웰/강문순 옮김, '책 대 담배', 빈우사, 2020. 12~13쪽) ('독서신문 진진호 기사-책 속 명문장-2020.03.19. 참조.)

위의 예문처럼, '눈에 들어온 문장'을 권표, 노란표, 붉은표, 마진표 같은 형식은 필요 없다. 그저,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글로 표현된 문장을 처음으로 만난 때가 있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읽는 것'이든, '작은 것'이든 문장에 대한 감상과 다양한 해석은 독자의 몫이다.



박 여 범
용복중학교 · 시인 · 문학박사

일창 대화에 형체를 알 수 없이 너와 나는 허공에 떠다니고, 비박에는 애뜻은 지렁이가 고개를 끄덕이니
태이를 너머 쏟아지는 빗줄기처럼 넘쳐나는 데시벨에 귀를 쫓긋 세우면
창문 너머 대학로 은행나무는 여전히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알 수 없는 일 모양으로 종일거리며
방긋랑긋 웃고 있다
-박여범,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을 때', 2021, 부르크, 일부분-

공감하는 책이 되었으면 한다. 소용은 관계 속에서 안어났다. 아무리 좋은 내용과 선행도 관계 형성이 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소용의 중요성은 말이 필요치 않다. 지구는 하나라는 교훈은 이제 당연시되었다. 세계 어디에 머물러도 SNS나 전자기기를 통해 소통하곤 한다. 공간 같은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물론 평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립자'보다는 '기래를 향하' 방향이 우세하다.

달굴한 바이러스 확산만이 타오르고
투명한 벽과 벽이 두 손을 맞잡고 가는 곳마다
달린 몽그리진 생체기에 익숙한 목소리는 새벽을 가른다

먼저 가신 엄마처럼 아득해서 큰 덩어리 숨길
비리케이트 그 자리엔 알 수 없는 한 점 먼지만이
어슬픈 불나방 허무살이 인생 저 끝 때 꺼져가는 소리 새벽을 가른다

한 번 내지르지 못하고 후들후들 가슴만 쥐어뜯으며
물기는 발길에도 기랑비 젖은 모

비명만이 기억 없는 새벽을 가른다
...
은하철도 구구구(999)처럼 분노만
이 치솟아 우주를 향하고
늘어가는 감마선 신드상이엔
뽀뽀뽀 긴 연기가
갈 길 몰라 구구절절 사연만
넉치는 개미하리만도 못한
푸른 하늘에 공작은 지랄 같은
욕지가리 한 꼭조에 새벽을 가른다

메마른 영혼은 하늘하늘 꽃잎이 되어 타박타박
갈지자 자랑하는 은하철도 떠난 자리에 검은 고양이
차거운 울음만이 새벽을 가른다
-박여범, '새벽을 가른다' 전문-

이처럼, 사다나다 새벽을 가리며,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있다. 이 소리가 귀를 소소하게나마 함께 하는 것이 건강한 문명과 만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항상 반성과 배려를 통한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가는 진정한 '벗집'을 우리는 누려야 하지 않을까. 돌이켜보면, 많은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광범한 사신도 이제는 놀랍지 않다. 이 얼마나 불행한 나 날인가.

그렇기에, 내약한 존재지만 '방관자'로 '분위'한 으로 일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소용의 자리에 영감을 마주할 수 있는 '적극성'이 필요한 시기가다.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니다. 내가 진성, 누려야 하는 그것을 찾지 못하는 어리서움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를 내지르지 않는 서로 서로가 되어서 하지 않을까?

독자재언

최근 충남에서 차매를 읽고 실종 됐던 80대 노인 2명이 수색 끝에 모두 구조됐다는 뉴스를 접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실종아동등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의하면 2020년 실종 신고 접수는 3만8,496건이고 이중 아동은 1만8,146건, 지적장애인은 7,078건, 차매환자는 1만2,272건으로 나타났다.

실종은 우리 주위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보호자들은 찾을 때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실사 실종아동 등을 경찰에서 발견하더라도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보호자들에게 인계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사전등록제'는 필수

이에 경찰은 2012년부터 실종에 대비해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등록제'란 18세 미만 아동, 지적 장애인, 차매환자들의 사진이나 지문 그리고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럼 '사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첫 번째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록할 대상자를 데리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대상자의 지문과 사진 그리고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면 된다. 이때 시간을 절약하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안전Dream(safe182.go.kr)'에 접속하여 사전등록신청 후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면 지문과 사진만 등록하면 된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에 '안전드림' 어플을 설치하고 지문사전등록을 누르면 본인 인증을 하고 대상자의 지문, 사진 등록하면 된다. 이때 지문등록이 안 되는 스마트폰 기종이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지문만 따로 등록하면 된다.

세 번째로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 시설, 노인복지시설에서는 경찰관서에 사전등록을 신청하면 경찰관이 현장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3개월 이전의 아동을 사전등록 하였다면 아동의 신체특징이 자동면서 바뀌므로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 좋다.

이런 방법들로 사전등록하여 혹시나 길을 잃고 헤매는 실종아동 등으로 인해 보호자들이 애대우는 일이 없도록 보호자들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경찰혁신경찰서서영희과 경감

사설

전주-완주 시내버스 시간선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운행 체계가 오는 6월부터 시간선제로 전면 개편된다. 지금은 전주 시내버스가 완주군의 마을 곳곳까지 들어가고 있다.

앞으로는 읍면 소재지까지도 운행하고 읍면 소재지에서 마을까지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방식이다.

전주 비전대와 완주 이서, 그리고 김제 용지 모산 마을을 오가는 21번 시내버스 등이 해당된다. 이 버스는 완주 이서와 김제 용지의 주민이 전주로 나가기 위해 이용하는 버스다. 그러나 승객이 많지는 않다.

오는 6월부터 이 버스를 비롯해 전주와 완주 이서를 오가는 시내버스의 운행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전주 시내버스들은 이서 소재지까지만 운행하고, 이서 소재지에서 각 마을까지는 완주군이 마련한 마을버스가 운행하기 때문이다.

전주 시내버스와 완주 마을버스는 소재지에 마련된 환승 센터에서 갈아탈 수 있다. 완주 마을버스는 6월 이서를 시작으로

9월에 완주 구이와 소양, 상관이 시작된다. 내년 2월에 삼례와 봉동으로 확대된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이 계획에 상당 부분 합의했다.

전주시는 시간선제 도입이 완료되면 승객의 평균 통행 시간이 28분에서 25분으로 줄고, 도로 거리가 246미터에서 134미터로 짧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승 건수와 환승 대기 시간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전주-완주 시간선제가 시행되면 버스 운행 횟수가 늘어나고 운행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간선제가 정착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승객들의 불편 때문이다.

시간선제는 지난 2005년부터 시도됐지만, 환승에 대한 주민 반발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다. 시간선제가 도입되면 시내버스 노선은 57%, 운행 대수는 13% 가량 줄게 돼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버스업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전라북도 부안 출신인 김춘진 전 국회의원인 aT, 즉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 선임되면서 벌써부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춘진 신임 aT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분사가 있는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서 이미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위기대응 수출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구성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 현지 판매 급감에 대응해 중국 장기 제고 품목의 긴급 판촉에 나선 데 이어 시장 다변화도 추진했다.

수출자금 지원을 확대했고, 단기 수출 보험료를 할인해 중소기업들이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게 도왔다. 특히 국가별 봉쇄조치로 인한 국제운임 상승, 운송 지연 등 물류대란 위기에 선제 대응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미국 유통 매장인 루드 바자(Road Bazaar)와 연계해 K라면 특별 판

촉을 진행했다.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전년 대비 3.6% 증가한 9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00억 달러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후 위기, 코로나19로 인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수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로 농어촌의 낙후화가 심화되고 있다. 갈수록 국산 농산물의 지킴이 기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수요자 창출이 절실하다. 귀농을 꿈꾸는 젊은이들과 은퇴자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 그러나 요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공사의 임직원은 물론 노동조합과도 수시로 대화하고 토론을 해야 할 때이다. 그러면서 aT의 미래 비전을 모색해 나가고 개선점을 찾아내야 한다. 신임 김춘진 사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사 운영을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